

“홍천 발전·군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마련 최선”

전명준 홍천군번영회장 인터뷰

홍천군번영회의 지역적 역할은?

홍천군 각종 현안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다 살기좋은 홍천 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동안 홍천군 철도유치추진위원회 구성, 홍천쌀 팔아주기 범군민 캠페인 전개, 내촌농협 단호박 팔아주기 운동, 지르매재 터널과 백양치 터널 조기 개통 건의, 홍천중학교 통합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홍천군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도지사 후보 홍천 철도 유치 공약 촉구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축제 등 각종 축제를 통해 지역을 널리 홍보하고 기획공연과 문화예술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천군을 위한 문화재단의 장기적 계획은?

홍천군이 문화재단의 사업과 조직,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이를 토대로 부서 개편과 사업변경, 인력 조정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지역축제 발굴 및 컨설팅은 물론 국내외 우수 문화예술프로그램 보급으로 군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전명준 홍천군번영회장 인터뷰 모습

어르신들 공연무대·축제 참여 확대 향토문화 계승·우수 행사 보급 역점

홍천군을 위한 번영회의 장기적 계획은?

홍천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읍면별로 조직된 번영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목소리를 담은 창구 역할을 다하겠다. 현재 각 읍면 번영회장을 군번영 회원으로 영입해 지역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특히 홍천중 통합이전 문제, 홍천 철도 유치 문제 등 굵직한 현안 해결에 홍천군과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

지역노인문화발전을 위한 계획 및 방향은?

먼저 재단이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혀드린다. 우선 어르신들이 문화 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무대 마련은 물론 축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홍천군 지역문화를 위한 어르신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천 지역문화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린다. 재단에서도 어르신들의 문화 창달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월 홍천군 축제나 문화행사가 있으면 소개한다면?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홍천 무궁화축제는 10월 5~9일까지 홍천읍내 토리숲 일원에서 열리는 홍천인삼·한우 명품축제로 통합 개최된다. 또한 홍천 주둔군을 위한 군인의 날 한마당 행사가 10월 8일 예정되어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많이 방문하셔서 힐링 축제를 즐겨주시기 바란다.

허남영 기자

홍천군문화재단의 지역적 역할은?

홍천문화재단은 지난 2016년 7월 공식 출범 이후 문화를 통해 군민 소통을 확대하고 군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문화예술회관과 서석면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홍천미술관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창작 및 보급, 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홍천찰옥수수축제,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 홍천 인삼 한우 명품축제, 홍천강 인삼송어

◆ 홍천군노인복지관 10월 행사 일정

일시	장소	내용
2018.10.01.(월)~10.12(금) 14:00~	홍천문화예술회관	제5회 아름다운 노년을 그린다(전시회)
2018.10.12.(금) 15:00~	홍천문화예술회관	제8회 아름다운 노년의 행복(발표회)
2018.10.17.(수) 10:00~	홍천군국민체육센터	한마음 운동회
2018.10.22.(월) 09:00~	홍천군노인복지관	2019년 쿨한 1학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

CONTENTS



02 -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03 - 노인관련기사 이모저모
04 - 경로당 탐방

05 - 홍천게이트볼협회
우리 동네 지명 유래
06 - 예술작가를 찾아서

06 - 숨은보물가게 1호
07 - 자원봉사단체 소개
08 - 독자기고



평생교육 전시회·발표회 홍천문화예술회관서 동시 개최



◇ 평생교육 작품전시회



◇ 평생교육 작품발표회

다가오는 10월 12일과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생교육 전시회 “제8회 아름다운 노년의 행복” 및 “제5회 아름다운 노년을 그리다” 평생교육 발표회가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동시 진행된다.

이날 열리는 발표회 및 전시는 매년 진행되는 기관 행사로서 한 해 동안 기관 내에서 동료와 함께 배우고 익힌 기량과 실력을 아낌없이 선보이는 자리로,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과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제2의 인생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매년 진행되는 연중 행사로 발표회 및 전시회에 참여하는 이용 회원들은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이날 행사를 위해 각 분야별 열심히 연습에 임하고 있다. 발표회 및 전시회 이후 노인 개인별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노인복지관은 “10월 17일 한마음 운동회”가 펼쳐진다. 한마음 운동회 참여자는 사전 참가 희망자 접수를 했으며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열리는 운동회에서는 다양한 경품이 걸린 스포츠 활동이 진행된다.

한마음 운동회를 통해 매년 열리는 경기이지만 우리 팀이 최고의 경기를 보여 줄 자신감과 의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능력 향상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실시에 따른 신규 회원 수 확대 및 홍천군 관내 노인복지시설 이용 기회 제공, 홍천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2018 2학기 5월부터 시작된 5개월 과정을 끝으로 “2019 쿨한 1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신청”이 다가오는 “10월 22일”부터 시작된다.

“2019 쿨한 1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10월에

접수를 시작하여 “총 5개월 과정”으로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을 희망하는 홍천군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홍천군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회원가입 이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19 쿨한 1학기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이용회원들의 빠르게 변화하는 욕구에 부합함과 동시에 현대의 흐름에 맞는 정보 제공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증진·취미·여가·교양·정보화 교육·동아리활동 등 50개 이상의 각 분야별 자격이 갖추어진 강사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강사와 강의계획을 바탕으로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이용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율과 더불어 개인별 지적 능력 향상과 신체기능의 향상 및 “신규 회원 이용 수 증대”를 기대해 본다.



노인관련 기사 이모저모

“어르신! 늘 건강하셔야 해요!”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장기 요양 급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50%(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만 본인일부 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해주고 있었는데 2018년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순위 50%까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순위 50%란, 개별 보험료를 오름차수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50%) 위치한 보험료의 값을 말한다. 단 감경률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2018년 8월 이용급여부터 적용된다.

“어르신들 노후생활 보탬 되었으면”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에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 연금액은 20만 원이었고,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소폭으로 인상하여 왔다.

2018년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014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20만 원 수준에 머물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치매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인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어 왔지만 중증치매, 저소득, 독거 등 취약계층 치매어르신들은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치매어르신들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다.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독거노인 공공후견인제도는 후견인이 치매어르신의 통장관리부터 의료행위의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제도이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치매어르신의 후견인 역할을 맡김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기초연금과 (044-202-3672)

치매정책과 (044-202-3531)

“은퇴 뒤에도 풍요로운 삶 누리기 위해”

고령 은퇴농업인 명예조합원제도 도입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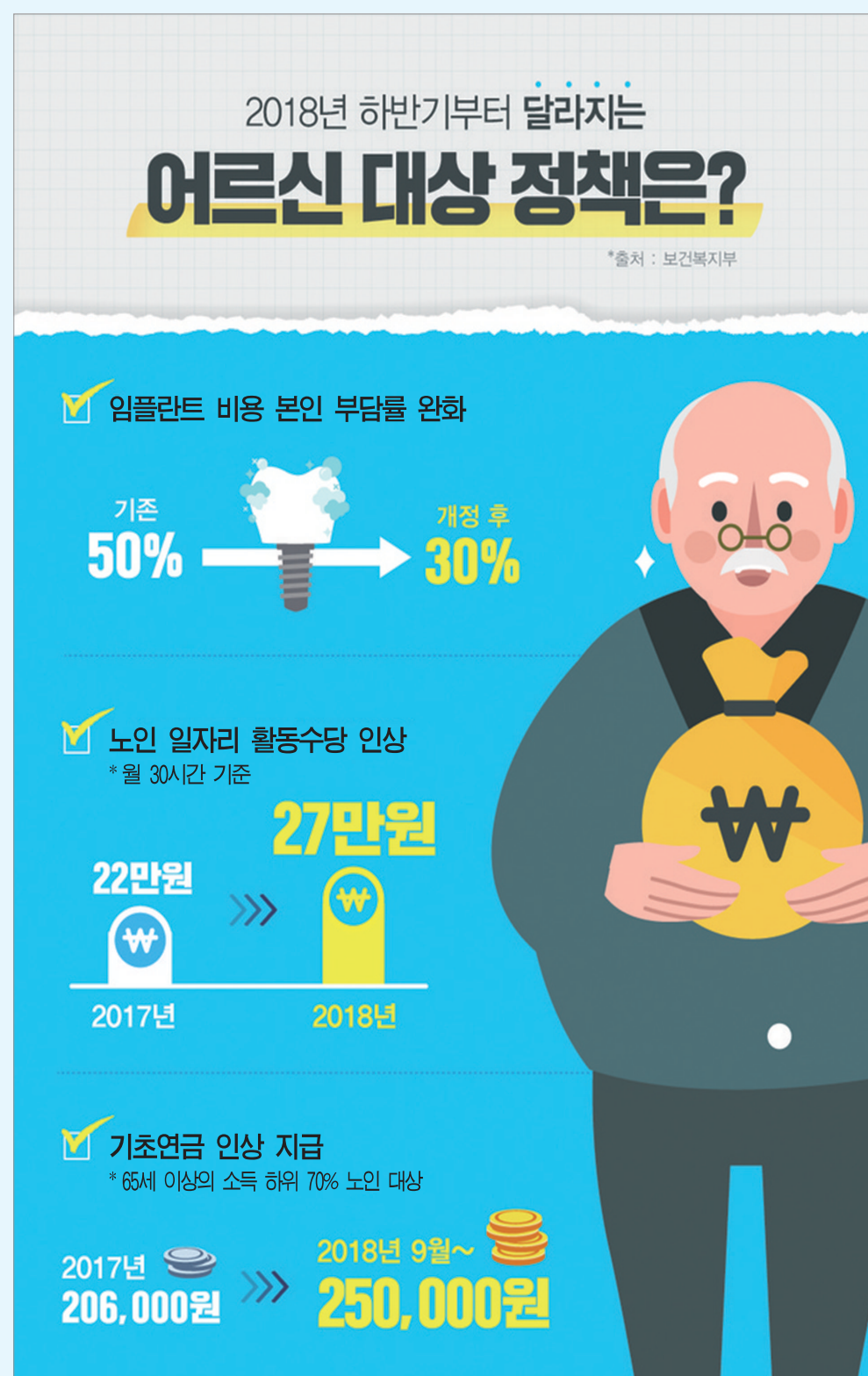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고령으로 은퇴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명예조합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조합은 명예조합원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에 따른 배당을 우대할 수 있다. 단,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연령기준 70세 이상이며 조합가입기간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도의 도입 여부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4)



치매예방 교육 정기 진행 ‘안심경로당’ 지정



◇ 북방면 성동2리 경로당(맨앞줄 가운데가 최광옥 회장)

모범경로당 선정 지방자치단체 표창 등 수상 모든 회원 애경사 찬조·위로금 전달 화합 다져

홍천군 북방면 성동2리 경로당은 최초에는 성동 초등학교에 학군단이 있었다.

당시 교장이셨던 남궁용 씨가 이 터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했다.

1970년도부터는 사랑방으로 운영해오다가 그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 회장인 최광옥(78세)씨가 현 회원 남자회원 29명, 여자회원 37명 총 66명의 회원과 생활하고 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회원을 소개하였는데 남자회원 장봉기(89세)씨는 일찍부터 경로당에 나오시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하고 있어 회원 간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여자회원 이삼례(90세)씨는 북방면 성동리가 타고난 고향이며 여태까지 성동리에서만 생활을 하였다.

건강의 비결은 부지런함과 욕심없이 식사는 거르지 않고 소식을 하는 것이라고 하며 큰 웃음으로 답을 했다.

또한, 여성 부회장이신 박선녀(83세)씨는 경로

당에 일찍 나와 문을 개방하고 청소와 점심식사 도우미로 회원간 모범이 되어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했다.

보건소에서는 농한기에 주 2회 치매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심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혈압과 혈당 측정을 통해 회원들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다.

홍천군에서 주최하는 건강체조 발표회에서 지난 2016년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2011년 10월 28일 민민체육대회 당시 모범경로당으로 홍천군수 표창을, 동년 6월 26일 북방면민의 날 행사에도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장 표창을, 2018년 6월 14일 대한노인회 홍천지회장이 게이트볼 대회에서 2등을 하여 많은 이의 박수와 갈채를 받은 바 있다.

북방면 성동2리 경로당은 전회원의 애경사에는 찬조금과 위로금을 전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 전 회원이 정과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북방면 성동2리 경로당 마을 입구에는 1965년 10월 4일 맹호부대 중대장으로서 월남출정을 위한 훈련 중 한 병사의 실수로 수류탄이 잘못 던져져 많은 전우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스스로 몸을 던져 수류탄을 덮음으로써 사랑하는 부하장병

을 구하고 28세의 젊은 나이로 산화한 장소에 고(故) 강재구 소령 추모공원 조성 및 기념관을 건립하여 후손에게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마을을 거슬러 올라가면 6·25 한국전쟁 전후에 건설한 대룡저수지가 5개 마을에 농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저수지 위로는 지난 2008년 5월 21일 개장한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 국민생태교육 및 탐방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성동2리 경로당과 인접해 있는 북방면 연엽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연화사는 동양최대 아미타대불(높이 36m)과 도내에서 법당이 제일 크기로 유명하여 경로당을 경유하여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최광옥 회장은 끝으로 경로당은 넓은데 실내에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어 몇 가지만이라도 설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회원 일자리는 총 2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길 희망하였다.

안태수 기자



◇ 경로당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직업
회장	최광옥	78	농업
부회장	박선녀	81	주부
사무장	박종대	72	건축업
감사	이용주	74	농업
감사	장일균	70	농업

☎ 033-433-8150

홍천게이트볼협회

76개 클럽 880명 가입 건강증진 전국 최고 실력 자랑



◇ 김주영 회장

지난 1983년 설립되어 현재 약 880명의 회원과 76개의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협회는 홍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생활도모 그리고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한 연수와 강습회를 비롯한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과 지도, 용구와 용품 지원 및 대회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조직구성

회 장	김주영	67
부회장	이용갑	67
부회장	권순녀	76
전무이사	이상순	61
경기위원장	신만교	63
심판위원장	유병우	60
홍보위원장	홍사선	59
여성위원장	김은녀	61
이 사	16명	
분회장	10명	

▶ 지역적 역할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이웃·동료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로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써 게이트볼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보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지도자를 육성하여 읍·면에 파견을 하고 각종 대회를 주최하여 게이트볼의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 단체활동, 연습, 그 밖의 활동

홍천게이트볼협회는 읍·면에 76개의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홍천군체육회장기를 비롯해 15개다. 그 외에 각 클럽별 그리고 후원으로 진행되는 대회가 약 6개 정도이다.

게이트볼은 실내·외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어 수시로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의 활동으로는 현재는 대회 및 연습에 치중하고 있는데 추후 자원 봉사활동 및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할 예정이다.

▶ 단체 및 회장 포부와 계획

홍천의 게이트볼은 강원도에서는 상당하다. 지난 10.19~10.20 이틀 동안 진행된 제9회 아리아리정 선거 강원도게이트볼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고 왔다. 나아가서 전국에서도 수준 있는 실력으로 게이트볼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

▶ 단체 및 회원 개선·건의사항

동계에는 훈련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10개 팀이 함께 경기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설립되었으면 한다.

또한, 사고없이 건강히 노후를 게이트볼과 함께 즐기면 좋겠다.

▶ 클럽 칭찬(다음호 취재 클럽)

송화게이트볼클럽(유병우 클럽장)을 추천한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화합이 잘되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도 함께 매일같이 운동을 한다.

▶ 10월 행사 계획

일 시	장 소	내 용
2018.10.17.(수) 08:00~	화촌면 공설운동장	홍천군 산림조합장기
2018.10.18.(목) 08:00~	화촌면 공설운동장	홍천군 늘푸름한우기

허남영 기자



우리 동네 지명 유래 홍천읍 갈마곡리

짓골 속개 닥바우가 합쳐진 마을... 9,228명 거주

갈마곡리(葛麻谷理)

현재 : 홍천읍 갈마곡리(1리~7리)

홍천읍의 동북쪽에 위치한 리로 본래 홍천군 현내면(홍천읍)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화양교 건너편 남산쪽의 짓골, 속개, 닥바우를 병합하여 갈마곡리라 하였다.

2017년 1월 1일 갈마곡7리가 신설되었으며 2018년 8월 31일 기준 인구 9,228명, 총 3,66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예술작가를 찾아서

자연과 생명 주제로 팔순에도 전시회 열어

대한민국 현대미술사 대표하는 조각가
두촌면이 고향... 1999년 귀향 활동 활발

박기환 화백은 팔순 전시회(2018. 5. 23~6.5)를 서울 인사동 조형갤러리에 서 개최했다. 또한 홍천문화재단 초대 전(2018.12.20~7.30)을 홍천예술회관에서 열어 문화 소외 지역인 고향의 군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자라는 생나무 향나무를 조각하여 조경과 어우러지도록 배려함으로써 그의 작품 세계가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시키고 있다.

박 화백은 전시 도록에서 “초등학교(국민학교)시절 6·25한국전쟁으로 모든 시설물이 파괴되어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형 같이 흠뻑돌을 만들어 교실을 만들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미군 부대에서 원조물자를 받아 학교 짓는데 시멘트 벽돌을 쌓는 등 실습을 하여 배운 실력으로 별장을 설계하여 짓고 조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역경의 시기를 전화위복으로 전환시킨 억척스러운 장본인임을 역설한다. 또한 “항상 꽃과 나무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기 칠십여 년이 흘러 꽃그림과 살아 있는 나무조각품을 기르고 가꾸며, 혼자의 힘으로 돌조각하고 집짓고 그리는 동안 나무는 자라서 아름다운 형체를 이루어 주었다.”고 자연에 감사할 줄 알고 순리를 따르는 순수한 초인이다. 또한 그는 “살아있는 작품으로 태어나려면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좋은 작품이 되어 갑니다.”라고 했다.

박기환 화백은 수원시민 헌장비(수원 시청 입구, 1987) 제작과 경기도 교육청 조형물 제작(교육청 입구, 1997)을 비롯하여 많은 동상과 비를 제작하였고, 한·중·일 국제 교류전(수원 미술관, 2012)에 참여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수원예술 50년 초대전(여흥 특별 전시장, 2013) 등 많은 단체전과 개인전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현대 미술사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작가다.

그는 1939년 홍천군 두촌면 패석리에서 태어났다. 절정초등학교와 두촌중



◇ 박기환 화백과 작품



학교를 졸업하고 서라벌고등학교(동기)와 서라벌예술대학 미술과를 졸업하였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박고석 화가실에서 공부를 하고, 교직에 몸담고 전공 분야인 예술(미술)의 후진 양성과 작가 활동을 병행했다.

수많은 꽃을 화폭에 담으면서 때로는 먼 타국인 터키에서 꽃씨를 받아 씨를 심고 꽃을 피워 그 꽃을 그리는 열정을 보이는 그림에서부터 여기 저기 굴러다니는 돌을 조각하여 생명을 불

어 넣어 주었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흔한 자연들을 그만의 눈으로 재조명하여 자유로운 영혼인 듯하면서도 영원성을 추구하는 작가다.

1999년 유년의 꿈이 서려 있는 홍천으로 귀향하여 현재는 한국미협 수원·경기·홍천 여흥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서 살아 숨쉬는 자연을 승화시키는 원진조각미술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영권 기자



숨은보물가게 1호 탈북민 전복녀 씨

식당 운영하며 봉사 실천·안보강연 강사 활동



탈북민 전복녀 씨는 2009년 중국, 라오스, 태국 등을 통하여 남한에 왔다.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어린이집 3년, 의원점 3개월을 경영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정리하고 2010년 2월 1일에 강원도 홍천군으로 이사하였다.

홍천에 와서 전통시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번영로 53번지에서 그린식당을 경영하고 있으며 주변에 어려운 사 람이 많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며 더욱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전복녀 씨는 함경북도 셋별군에서 둘째 딸로 태어나 17세에 입대하여 26세에 전역하였다. 계급은 대위였고 소대장을 역임하였다.

남한으로 탈북한 이유는 미국 독립혁명 지도자 페트릭 헨리가 남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처럼 자유를 찾아 죽음을 각오하고 남한

으로 탈북하였다. 남한에 와서 김명길 씨와 결혼하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두개비산로 18번지 희망리 대화연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홍천군청, 자유총연맹, 홍천경찰서에 안보강연 강사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소망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천사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광명 기자



자원봉사단체 소개

자유총연맹 홍천군지회

52년전 결성 도움 필요한 곳 언제 어디든 달려가



◇ 자유총연맹 홍천군지회 회원

자유총연맹 홍천군지회 여성단체는 52년 전 결성되었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 시절에 결성된 순수 봉사단체이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어디서나 필요하다면 달려가는 여성'이 모토이다.

해방 후 농촌의 환경은 열악하고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노동 등 눈코 뜰 새 없던 그 시절 앞서는 마음과 뜻으로 이런 봉사단체를 결성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다. 눈을 밖으로 돌리고 마음을 넓게 펼친 대담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회원은 현재 약 30명으로 연령은 5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하다.

▶ 봉사내용



◇ 안옥순 회장

환경정화운동, 양성(兩性)평등 캠페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식당봉사, 독거노인·국가유공자 등 35가구 김장봉사, 체육관행사 음료봉사, 아동지킴이 활동, 흥천여성협의회 회원 활동, 요양원 봉사 등이다.

▶ 보람을 느낀 사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크리스탈웨딩홀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했다.

단체와 개인들의 후원으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그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자유'란 단어를 제외하자는 교육부에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 나누고 싶은 사례

무더운 날씨에도 고령의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땀 흘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서로에게 더욱 강한 결속력을 느끼게 한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받으시는 분보다 연령이 높을 때도 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80부터', '더우나 추우나 이유 없이 하는 것이 봉사다.' 이것이 우리 봉사단원들의 정신이다.

▶ 우리들의 희망

지금 봉사단의 사무실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 회의를 할 때나 봉사단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하고자 해도 건물이 좁아서 불가능하다. 우리 봉사단의 자체 건물이 있어서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기를 꿈꾼다.

▶ 차기 행사 일정

행 사	일 정	장 소
강원도 체육대회	2018.10.26.(금)	-
김장나눔	2018.11.	-
북한이탈주민 송년행사	2018.12.	-

김순화 기자

▶ 자유총연맹 홍천군지회 임원진

직 책	성 명	직업	나이
회장	안옥순	-	70대
부회장	김연화	-	60대
총무	김영자	프리랜서(강사)	50대
고문	신금자	자영업	70대
고문	최옥남	-	60대
감사	이선녀	보험대리점	60대

독자기고



정 관 선
화촌면

가을이 시작되는 초
입, 코스모스 꽃봉오리
가 피는 청량한 파란
하늘이 예쁜 구월, 홍
천군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 참
여자 586명은 2018년 9월 4일과
11일 화요일에 서울 청와대와 서
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문화활동
을 다녀왔다.

문화활동은 노인일자리에 참여
하면서 반복적인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노인사회 활동 참여에 긍정
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과 관계된 행정기관을 지칭하며
대통령 집무공간이 있는 본관,

이용되었으며 1948년 이승만대통
령의 관저로 사용되어 경무대로
불렸다.

청와대란 명칭은 1961년 윤보
선 대통령이 부르면서 붙여진 명
칭이다.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녹지원은 150여 년된
한국산 반송이 있고 역대 대통령
들의 기념식수가 있는 곳으로 어

칭되었다가 현재 독립 공원의 서
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설치되었
다. 유관순 열사가 있었던 여옥
사 8호엔 추모하는 작은 조화꽃
모듬이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숙
연하게 만들었다.

지하 고문실에서는 독립운동의
대가로 혹독하게 치러진 고문 속
에서도 대한독립의 염원을 키웠
던 일제의 만행을 고발
하는 노구의 증언이 관
람하는 참여자들을 경
건하게 만들었다.

또 각종 고문 기구들
을 보며 울분을 터트리게도 하고
밤낮 얼굴만 내민 채 서 있어야
하는 벽관 앞에서는 관람자들을
잠시 할 말을 잃고 멈추어 서게
만들었다.

역사속 현장에서 선열 숭고한 뜻 기려

공식행사공간인 영빈관, 주거공
간인 관저, 외빈 접견 장소인 상
춘재, 대언론 창구인 춘추관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후원으로

린이날을 비롯한 야외행사를 진
행하는 곳이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일제
에 의해 세워졌던 경성감옥을 시
초로 1923년 서대문 형무소로 개

독자기고



이 세 현
전 춘천시 경제인연합회장

날씨가 무척 쌀쌀해
졌다. 오늘 아침 한 노
인이 찾아왔다. 다름
아닌 필자의 사무실에
한달에 두세 번 들리시
는 폐지 줍는 어르신이다. “원장
님! 신문 좀 가져가도 되지요?”라
고 하시며 나의 사무실문을 여시
는 노인의 모습은 꽤나 추워 보였
다. 이 어르신과의 인연은 몇 년
되었다.

어느 날 밖에 업무를 보고 사무
실에 돌아오는 길에 인도에서 폐
지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
무실에 쌓아 놓은 폐신문이 있으
니 가져가시라고 하니 “주시면

고맙죠!” 라며 굵은 허리를 일으
키며 따라오셨다.

그렇게 신문을 정리해 드린 후
로 인연의 끈이 이어졌다.

사무실 쇼파에 앉으시라며 따
뜻한 커피 한잔 드리니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건네신다. 커
피 컵을 들고 자꾸 나가 먹겠다고
하시기에 관찮으니 편히 마시고
가시라고 하니 어정쩡 쇼파에 앉

보는 것, 그리고 아프지 말고 어
느 날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였다.

그늘진 곳 민초들의 삶을 대변
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정부는
환경정화 차원에서 연탄광산을
폐광하고 있다.

그러기에 서민들의 겨울 난방
주역인 연탄 값이 오르고 있다.

물론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속

그러나 너무 쉽게 돌을 던지는
손에 묻고 싶다. 그대들의 손은
황희 정승처럼 청백리 손인가? 요
즈음 국민들이 옛날 백성처럼 무
지한 국민이 아니다.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다.

어느 당 하나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자는 당이 없다. 현 정부는
이제 그만하고 민생, 안보에 더
욱 힘써주기 바란다.

관용과 스케일이 큰
정부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마음이다. 지나온 역대

정부들 잘잘못은 국민들이 다 알
고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파해
쳐 부관참시하는 것은 다시 복수
의 칼날을 품게 하는 것이다.

바라건대 현 정부는 가진 것 없
어도 민초들의 마음만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어느 노인의 소
박한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런 사회를 바라며 추위
지는 동절기에 온 국민이 따뜻하
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어느 노인의 버킷리스트

으신다.

노인과 짧은 시간에 나눈 대화
는 이렇다.

“연세도 있으신 것 같으신데
이렇게 아침 일찍 폐지수거 하시
느라 많이 힘드시죠?” 하니 이렇
게라도 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주워가서 없다는 것이다. 폐
지수거도 경쟁인 것이다.

노인의 바람은 겨울이면 연탄
한 번 걱정 안하고 따끈하게 때

에 살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에는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마련 안된
상태에서 우선 치우고 보자는 정
책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
다. 요즘 연일 뉴스에는 아무개
가 구속됐다. 아무개가 자살을
했다는 등... 구 정치 적폐청산이
라는 미명아래 사정의 칼날이 난
무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정치
는 바로잡는 것이 맞다.